

# 풍경과 기억: 이제현의 사(詞) 문학과 동아시아의 양층언어(diglossia) 환경

류 정 민(연세대)

## 들어가며

본고는 이제현(1287~1367)의 사 문학을 연구하되 당대 동아시아의 양층언어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 형식적 특징과 문학 지향을 논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316년 북경에서 사천으로 여행과 1319년 강남지역으로 여행 시 지은 사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가 이국의 풍경과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또한 고려 문인으로서 중국 역사와 문명, 전통적 문학 정전(canon)을 전고와 이미지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하였는지를 고찰한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은 양층적 혹은 다층적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지역사회는 공통적으로 한자 한문이라는 문언적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각각의 개별 구어적 발화 환경을 영위하고 있었다.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도 규범어로서의 한자 한문을 형식에 맞게 구사해 내고 문학 정전으로서의 작용하고 있는 공통의 전통을 당대적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사 문학은 전통적으로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의 현장성 측면에서도 전통 한시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문학의 구술성과 문자성이 매우 독자적인 형식으로 결합된 예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작가의 목소리 또한 매우 개성적이다. 이러한 사문학을 고려 문인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는지를 살피고 또한 이 분석을 통해 작가 정신의 지향성을 고찰하는 것은 고려 문학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지어진 이제현의 사 작품을 분석하되 그 이미지의 운용과 전고의 활용을 전통 한시와 비교한다. 이제현이 창작한 구체적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사문학의 문학적 특징과 작가 지향성을 동아시아 문명과 언어 환경이라는 틀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 한자 문화권과 양층 언어의 문제

‘한문’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언어였으며, 동시에 각각의 나라들은 독자적인 구어를 향유하고 있었다. 한문이라는 공동 문어와 민족어로서의 구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러한 양층적 언어 상황은 전근대 문학의 정체성과 민족 국가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된다. 공동 문어로 표현된 각국의 문학은 동일한 문학 정체성을 내포하는가? 공동 문어와 민족어로서의 구어는 서로 대립된 관계에 있었는가? 민족어로서의 구어 사용과 민족 국가의 경계는 일치하여 발전하였는가?<sup>2</sup>

<sup>1</sup>\*본고의 동아시아의 양층언어에 관한 논의는 본인의 다음 논문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하였다. 줄고, 「한자 문화권과 양층 언어(diglossia)의 문제」, 《어문연구》 제 47 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7-46, 2019.

세계 문학사의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로 먼저 조동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공동어문학에서의 민족 문학이라는 틀에서 “양층 언어”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조동일, 《공동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9. 또한 한문학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언어 문화권에서 한국 한문학의 정체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심경호, 「동아시아 문화권과 한문학의 다층성」, 《한문교육연구》 제 42 권, 한국한문교육학회, pp.5-36, 2014; 진재교, 「한국 한문학 연구와 “東(동)아시아」, 《한문학보》 제 27 권, 우리한문학회, 2012. 한편, “유교”를 한자문명이 기반으로 파악하여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을 고찰한 대표적인 연구로 임형택의 논저를 들 수 있다.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sup>2</sup>전근대 동아시아의 언어와 공간의 문제를 고찰한 성과로 먼저 피터 코니키(Peter Kornick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중국 문헌 전통이 각국의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타 문화권의 언어의 발달과 어떤 동이점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탕구트, 티벳, 거란, 여진 등의 경우를 각기 고찰하고 나아가 서유럽 언어 문제와 비교

연구의 지평을 ‘세계 문학’으로 확장하면 언어와 문학의 정체성, 또한 민족 국가의 문제에 관하여 좀더 선명한 역사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근대 유럽의 경우도 라틴어와 민족 언어로서의 구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언어 환경을 오래도록 유지하였다. 유럽 문학사에서 보이는 양층 언어의 환경, 특히 공동어-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의 라틴어의 역할은 동아시아에서의 한자 한문의 사용과 동일한 것이었을까?<sup>3</sup>

한자 한문이라는 공동 문언어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 서구 학계에서는 많은 조어들이 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East Asian cultural sphere: 동아시아 문화 영역, (2) Sinosphere: 중국(문화 영향권 안에 있는) 영역, (3) Sinographic sphere: 한자를 사용하는 영역, (4) Sinographic cosmopolis: 한자를 사용하는 세계, 혹은 (5) Chinese scriptworld: 중국 문자 세계 등이다. 이들 언어는 대부분 표기어로서의 중국 문언어와 그 언어적 영향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중국이 아닌 ‘언어로서의 문언어’라는 다소 중립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개념들은 근현대 만들어진 정치적 국가적 경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공유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근현대 민족 국가(nation states)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지역 혹은 지금은 사라진 왕조들-탕쿠트, 티벳, 거란, 여진 등-의 역사적 문화 현상을 분석하기에도 유용한 개념적 접근이다.

동아시아 지역구분을 위한 위와 같은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양층적’ 혹은 ‘다층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공통적으로 한자 한문이라는 문언적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지역 사회는 개별적으로 구어적 발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고유의 표기법을 고안하여 구어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층적인 언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폴락은 ‘범세계적 언어(cosmopolitan)’와 ‘지역 구어(vernacular)’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sup>4</sup> 즉, 문언어로서의 한자 한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종의 세계 언어-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언어 현상을 서구의 라틴어와 개별 지역의 구어의 관계와 비교하여 설명했다. 다층적인 언어 구조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각 지역 사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한자어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폴락의 개념은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문언어의 언어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구어적 전통과 그 발전의 면모, 그리고 공동 문언어와 다양한 구어와의 길항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연구한 저작이다. Peter Kornicki (2018), *Languages, Scripts, and Chinese Texts in 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이는 한문이라는 보편어와 각국의 구어의 관계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동경 대학의 사이토 마레시(齋藤希史)의 “漢文脈と近代日本：もう一つのことばの世界”(東京：日本放送出版協会, 2007)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문을 단지 중국 고유의 문언어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전파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고찰하고, 한문과 접촉을 통해 생겨난 말을 ‘한문맥(漢文脈)’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 시도이다. 한문 텍스트 전통에서의 ‘공간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중국의 학계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대표적으로 복단 대학의 갈조광(葛兆光)은 〈想象異域：讀李朝鮮漢文燕行文獻札記〉(中華書局, 2014) 등의 일련의 논저를 통해 전근대 한자 문화권의 범주를 ‘문화 영역’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연행록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 한문 문화권의 정치 문화적 영역을 개념화한 명저이다.

<sup>3</sup>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 공동어 혹은 연결어(bridge language)라는 단어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일차적 의미는 “고유어가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이다. 세계 여러 문화권의 언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다양한 해석의 충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개념적 정의에 관하여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Nicholas Ostler, *Empires of the Word: A Language History of the World*, Harper Perennial, 2006.

<sup>4</sup> Sheldon Pollock, *The Language of Gods in the World of M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발화로서의 구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과정(written vernacular)에서 한자 한문을 처리하는 방식은 각 지역사회마다 상이했다.<sup>5</sup> 또한 불교나 유교 등 정전적 지위에 있는 한문 텍스트를 어떻게 구어로 수용하여 각각의 전통 속으로 받아들였는가의 양상도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구어를 활용하여 한자를 발음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양하였다. 따라서 한자문화권 내 각각의 언어 공동체는 이러한 구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 집단의 ‘내부적 결속력’을 단단히 다지고, 타 집단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즉, 표준적 문언어로서의 한자 한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들이 일정한 공통점을 공유하였고 ‘동아시아’라는 언어 공동체를 개념화하게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독특한 구어적 전통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 구어적 전통에 의해 다시 명료하고 지역 사회가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한자 한문이 가지는 라틴어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한문을 구어로 발음하여 읽을 때 그 통일된 방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텍스트 전통상, 문언어로서 한문은 구어로써, 혹은 말로써 가능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한자 한문은 그 시작점부터 항상 ‘쓰여진’ 상태로 존재하였고 눈으로 읽는 것을 목적으로 전래되고 발전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한문을 공통으로 사용하였지만, 이 문언어가 ‘의사 소통을 위한 구어’라는 의미에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기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문 문언어를 음성으로 낭독함에 있어서 일정한 통일된 혹은 ‘옳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중국이라는 경계권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발음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라틴어는 발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의 링구아 프랑카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 문언어의 특징은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즉, 각국 구어의 발달은 중국적 문언 전통에 의해 크게 위협받거나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문과 구어는 그 지위와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 공존할 수 있었다. 한문은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인 쓰인 ‘외국어’로 간주되지 않았고, ‘하늘 아래(天下)’ 공통으로 쓰인 일종의 유산으로 작용하였다.<sup>6</sup> 또한 한자 한문을 통해 전달된 지식도 ‘중국적 정체성’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이는 한문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국 민족어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위협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문이 외교적 의사소통에서 쓰이는 공식 언어이긴 했지만 이 점이 중국 황제가 제국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한문을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는 점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한자 한문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공동 문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권(Sinitic world of letters)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각각 민족 언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sup>7</sup>

<sup>5</sup> Kornicki (2018), 전게서. 한편,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에서 조동일은 “중세화”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문어와 민족구어의 관계를 논증한 바 있다. 즉, 각 지역국가는 보편종교와 공동문어를 받아들여 중세화할 때 민족어의 발전 또한 이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한문은 말이 아니고 글인 점이 다른 공동문어와 다르며, 각각의 지역국가는 나름의 발음으로 읽었다는 점에서 이는 공동문어적인 성격과 동시에 민족어적인 양면이 있다고 설파하였다.

<sup>6</sup>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천하’ 개념이 현대 중국에서도 재평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춘송의 경우 ‘왕도’와 ‘천하국가’라는 개념으로 중국이 종래에 천하 개념에서 국가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현대 글로벌 세계에서 유교 사상의 보편성을 재고하면서 다시 천하 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쉬지린은 ‘신천하주의’를 통해 보다 정치하게 중국 문명의 부흥을 논구하였다. 즉, 한자 한문이라는 공통의 문언어가 사라진 현대에 패권적이지 않은 신천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보편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고민인 것이다. 干春松 (2013), 「“天下情怀”: 文化自觉的逻辑延伸」, <探索与争鸣> 1, pp.23-25; 许纪霖 (2012), 「天下主义: 夷夏之辨及其在近代的变异」, <华东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6, pp.66-75 참조.

<sup>7</sup>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혹은 18 세기에 지어진 많은 연행사들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구어의 사용과 문화적 정체성의 상관 관계, 혹은 국가라는 정체와의 연결 고리를 비교적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다고

## 박제된 풍경: 이제현의 중국 여행

고려 이제현은 중국 문언어의 성운적 특성까지 완벽히 체득하였다고 전해지며 그가 지은 사문학 또한 형식적으로 흠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원 간섭기의 고려의 상황에서 그는 중국 수도에서 만난 한족 문인들과 긴밀히 교류하였고 또한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먼 여행길에서 다수의 사 작품을 창작하여 실시간으로 북경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다. 보편적인 한문 문언어와 고려의 구어라는 양층적 언어 상황에서 고려 문인이 창작한 사 문학은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의 사 작품을 읽어보면 그 이미지 운용과 전고의 활용이 전통적인 사와는 매우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사 창작은 (1)시어를 먼저 선택하여 악곡에 맞출 수도 있고 (選詞以配樂), (2) 악곡에 맞추어 시어를 정하기도 하였다 (由樂以定詞). 특히 후자는 악곡의 형식에 말을 맞추어 넣는 방식, 즉, 전사(填詞)의 창작 방식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사 형식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장르의 음악성과 연행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정형화된 형식은 반복과 공연을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가창자에 의하여 노래가 구전되고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의 형식은 표면적으로 가사를 구속하는 장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구어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서정적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유연하고 즉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또한 감각적이고 섬세한 미학적 특징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사의 위와같은 본래적 특징과 비교해 볼때 고려 이제현의 사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제현의 사는 전사(填詞)의 관습에 충실하여 음악적 형식성을 준수하는 점에서는 전혀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그 가사의 운용의 측면에서는 구어성을 느낄 수 없으며 발달한 현장성과 즉흥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미학적 측면에서도 섬세한 미적 감각을 자아내는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운용하고 있지 않다. 즉, 이제현의 사는 형식적 완벽함 속에 사 본연의 세련된 감각과 유연한 구어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어적 사를 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한 시인은 문어적으로 읽히는 사를 지음으로서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물론 당시 고려의 문단에는 소식(蘇軾, 1037 - 1101)의 문학 사상과 작품이 크게 유행하였다. <sup>8</sup>“시로서 사를 짓는다 (以詩爲詞)”라는 표현이 대변하듯 사라는 장르는 이미 연행성을 탈각하고 읽기 위한 한시의 양식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이제현 사가 단순히 소식의 영향으로 문언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설명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의

---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구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도, 지나치게 주장할 필요도 없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근현대 문학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는 “근대 민족 국가의 탄생에서 구어의 역할”이다. 구어의 발달은 한자 한문이라는 문언어의 전통을 쇠퇴하게 만들었을까? 동아시아 각 지역 사회의 구어와 보편 문언어로서의 문언어로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 서구 학계에서 ‘민족 국가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라는 개념은 매우 근대적인 자각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See, Prasenjit Duara,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s,’ *Journal of Asian Studies* 69: 963-83, 2010. 그런데 유럽사에서 보이는 민족 국가의 성장과 구어의 발달, 그리고 보편어의 쇠퇴라는 도식이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자 한문이 19세기까지 그 영역을 공고히 지킬 수 있었고, 20세기에 조금씩 후퇴한 것은 구어화의 발전에 의한 문언어의 상대적 쇠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문언어의 쇠퇴에는 당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 촉급했으며 그 지식이 유럽어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sup>8</sup> 1981년 발표된 《域外词选》 이래 중국 학계에서도 이제현과 그의 사문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夏承焘, 《李齐贤》,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 2期, 1981. 吴肃森, 《朝鲜的词学》, 教学研究, 第1期, 1986. 韦旭升, 朝鲜文学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6. 특히 90년대부터 제출된 많은 연구 중 “북송의 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고려에 수용되었는가”의 문제를 다룬 저작이 있어 주목된다. 吴熊和, 「高丽唐乐与北宋词曲」, 《中华文史论丛》, 第50辑, 1992, 35쪽. 비교적 최근의 연구 중 衣若芬은 중국의 潇湘八景이 이제현의 시와 사를 통해 한국의 松都八景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巫山一段云体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연구했다. 衣若芬, 「李齐贤八景诗词与韩国地方八景之开创」, 《中国诗学》, 第9辑, 2004.

창작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시적인 “경계 (境界)”는 (1) 객관적인 감각적 경험이 (2) 시인 내면과 교감할 때 (3)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현의 사 창작에서 여행의 경험은 단순히 이국적인 풍경과의 조우가 아니라, 작가가 여행의 경험과 관계 맺는 방식, 즉 여정 중 만난 새로운 세계가 사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 더 큰 문명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북경에서 사천으로, 또 북경에서 강남 지역으로 긴 여행을 하는 과정에 비친 풍경은 작가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을 사라는 특정한 형식으로 읊고, 나아가 실시간으로 북경의 지인들에게 작품을 전송한 시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본고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첫번째 측면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특정 그룹 (community)과 공유하고자 했던 공통의 “정체성 (identity)”의 문제이다. 이제현은 작품 창작의 시점에서 이미 상상된 독자를 상정하고 있었다. 그 독자는 북경에 있는 한족 문인들이었으며 사 작품은 여행 중의 작가와 북경의 독자 사이에 공통의 문학적 정체성을 공유하게 해주는 소통의 수단이었다. 풍경은 순수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를 통해 의도된 독자를 위해 독특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 문학적 정체성의 문제는 이제현 사에서 “전고 (allusion)”의 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이제현의 전고는 단순히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현재 목도된 풍경과 소환된 과거 사이에서 발견되는 작가의 목소리이다. 몽고 섭정기라는 당대의 상황에서, 고려의 한 개인이 한문 문화권의 거대한 문명과 전통을 어떻게 해석해 내는가라는 문제인 것이다. 작가에게 풍경은 이미 선행된 독서를 통한 지식으로 재해석 되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중 접할 수도 있는 현장의 직접성과 감정의 즉흥성은 사 창작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이제현의 사가 많은 전고를 사용하여 한시처럼 읽히는 특징은 단순히 그가 당대 유행하던 사 창작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의 풍경은 과거를 통해 재해석되며, 작가는 과거에 읽었던 텍스트와 그 문학적 전통을 풍경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현의 문학적 정체성은 그가 문학적으로 재현한 과거 속에서 구체화되고, 또한 북경의 한족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공고화되고 증폭되는 것이다.

### 현재 속 과거, 과거 속 현재: 몇가지 예

石室天壇封禪了  
 靑鳥舍書  
 細報長生道  
 寶鼎光沈仙掌倒  
 茂陵斜日空秋草

석실과 천단에서 봉선을 마치니  
 파랑새 편지 물고 와  
 장생의 도를 소상히 알려주었네  
 보정은 빛이 바래고 선장은 쓰러졌네.  
 무릉에 지는 해 부질없이 가을 풀에 빛나네.

百歲眞同昏與曉  
 羽化何人  
 一見蓬萊島  
 海上安期今亦老  
 從教喫盡如瓜棗

백세 인생은 진정 석양과 새벽 사이처럼 짧아라  
 선인이 된 이 누구인가  
 봉래도를 한번이라고 보았을까  
 해상의 안기생도 이제는 늙었으리  
 설령 오이 대추를 다 먹었다 하더라도.

한무제의 무릉터에서 작가의 시간은 과거로 흐른다. 이 곳에서 작가가 실제로 마주한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작가의 시선은 “무릉에 지는 해 속, 가을 풀에 스러지는 석양빛”에서 시작한다. 어찌면 그곳에서 만난 작은 유물의 조각은 보정과 이슬 쟁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스산한 풍경 속에 작가는 과거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더듬어 나간다. 한무제가 太室山과 五壇에서 정성껏 제사를 올리니 서왕모의

파랑새가 날아온다. 현실의 불완전한 파편은 과거의 온전함과 영원함과 대비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봉래산을 왕래하는 신선 이야기로 이동한다. 안기생은 아직도 어딘가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약간은 쇠약해 졌을까. 칼라와 같은 현재 속 영원함을 상상하는 모습이 쓸쓸하다.

사 작품의 즉흥성과 연행성은 구어적 표현과 더불어 동적 이미지의 효과적 표현으로 구현될 것이다. 반면 명사구의 반복전 배치는 시적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시각적 효과를 증폭시킨다.

棲鴉去盡遠山青	둥지 찾는 까마귀 사라지고 먼 산은 푸르며
看暝色, 入林壑	어스름을 보니, 별판으로 들어간다.
燈火小於螢	등불은 반디불보다 작는데
人不見, 苔扉半扃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끼 낀 사립문 반쯤 닫혀있네

照鞍涼月	안장을 비추는 서늘한 달
滿衣白露	옷에 가득한 흰 이슬
繫馬睡寒廳	마을 매어놓고 찬 대청에서 잠을 이룬다
今夜候明星	오늘 밤 새벽별을 기다리니
又何處, 長亭短亭	또 어디런가, 여행길 객사 이어지는 구나.

저녁 길의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은 상편과 하편이 모두 작은 시각적 이미지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에 그려진 원경의 이미지는 석양의 풍경을 수채화적 색감으로 그려냈다. 푸른 산으로 사라지는 까마귀와 별판에 내려앉은 어스름, 그리고 반디불처럼 희미하게 깜박이는 등불은 모두 조용하고 소멸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안장 속에 비친 서늘한 달, 옷에 가득한 이슬.’ 어떤 역동적인 동사도 포함하지 않는 명사구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는 효과적으로 상편과 하편의 전환을 이끌어 낸다. 시인의 시선은 원경에서 지금 여기의 현장으로 이동하고, 목소리는 내면화되어 고요한 독백을 이끌어낸다. 그 곳에서 시인은 독자와 소통하고, 독자는 시인과 같이 새벽별이 뜨는 하늘을 바라본다. 고단하고 피로하나 잠들지 못하는 여행객의 명징한 정신에 독자가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역동적 혹은 청각적 이미지를 노출하지 않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와 미세한 움직임 포착하여 시인과 독자가 함께 한쪽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화산을 바라보며 지은 아래의 사는 “호방”한 풍격을 다양한 이미지와 전고를 운용하여 그리고 있다. 시인은 원경에서 화산의 봉우리를 하나하나 묘사하며 점차 풍경이 이끄는 과거의 이미지로 독자를 이끈다. 우뚝하게 솟은 세 봉우리, 칼같이 맑고 서늘한 가을 기운, 푸른 하늘까지 이어진 쇠난간, 은하수를 머금은 맑고 차가운 옥정샘. 실수처럼 살짝 찍힌 조물주의 손자국은 자연스럽게 하편의 전설 속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

天地賦奇特	천지가 특별함을 부여하여
千古壯西州	천고토록 서주에서 우뚝하다
三峯屹起相對	세 봉우리 우뚝 솟아 마주하니
長劍凜清秋	장검같이 맑은 하늘에 기운이 서늘하다
鐵鎖高垂翠壁	쇠난간은 푸른 절벽으로 높이 드리웠고
玉井冷涵銀漢	옥정은 은하수를 차갑게 머금었으니
知在五雲頭	오운봉 정상에 있음을 알겠구나
造物可無物	조물주가 흔적 없이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掌跡宛然留      손바닥 자국이 여전이 남아있도다

記重瞳      순임금이  
崇祀秩      성대히 제사를 올려  
答神休      신명에게 답한 것을 기억하네  
眞誠若契眞境      진실된 성의가 진실된 경치와 합해지면  
靑鳥引丹樓      서왕모의 파랑새가 붉은 누각으로 인도할 것이리.  
我欲乘風歸去      나 또한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으나  
只恐煙霞深處      두렵도다, 안개와 노을이 깊은 그 곳  
幽絕使人愁      깊고 떨어진 곳 시름깊게 할듯하여.  
一嘯蹇驢背      절름발 나귀 위에서 시를 읊은  
潘閬亦風流      반랑 역시 풍류를 즐긴 것이네.

파랑새가 인도하는 온전하고 영원한 세계가 “붉은 누각”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등장한다.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눈길을 끈다. “진실된 성의가 진실된 경치와 잘 조응이 되면” 바로 가능한 것이다. 진실된 경치는 눈앞의 화산으로 충분히 그려졌으니 문제는 시인의 진실된 마음이다.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갈망은 분명하나 아직 현실을 딛고 있는 여행자의 발길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완벽하나 격절된 그곳은 아직 현실과 온전히 조우하지 못하고 있다. 나귀를 타고 화산을 유람한 반랑처럼 그 곁을 지나가는 것으로 지금은 만족할 뿐이다.

#### 결론

\*지면 관계상 발표시에 구두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